

광주경찰, 무인단속장비 확충...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 실현

연말까지 총 132개 초등학교에 무인단속장비 설치 과속방지턱·신호기 등 학교주변 도로환경 시설 확충 “신호·속도 준수... 어린이 교통안전도 큰 향상 기대”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광주광역시와 함께 올해 광주지역 전체 초등학교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98개 초등학교에 99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설치 완료하면, 총 132개의 초등학교에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은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더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좁은 골목길이면 도로와 같은 도로여건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25개소는 과속방지턱, 신호기 등 학교 주변 도로환경에 적합한 시설물 설치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시는 2020.03.25.부터 개편된 도로교통법 제12조(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무인단속장비 설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인단속장비 설치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50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무인단속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설치업자 선정, 도로교통공단 인수검사, 시범운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상 운영 전까지는 이동식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해 감속운전을 유도하고, 취약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안전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30km/h로 주행하기는 너무 답답하다며 제한속도를 상향시켜 달라는 항의성 민원이 있는 한편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재촉하는 요청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30km/h는, 운전자 상황에 따라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속도이다. 하지만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사망확률을 분석한 해외 연구 자료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30km/h일 때 보행자의 사망확률은 10%이지만 속도가 60km/h일 때 사망확률은 90%로 대폭 상승하고,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는 차량 속도가 30km/h일 경우 2층, 60km/h일 때는 6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렇듯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h 하향은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광주경찰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속 장소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운전자들이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해서 단속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광주지방경찰청과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내비게이션 회사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지속한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계획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면 어린이 교통안전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들게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 소통보다는 어린이 안전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할 때는 제한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시는 안단다는 점을 거듭 부탁했다. /박은진 기자 pej269400@

광주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대상 선정 176개 단체, 4월16일부터 보조금 지원... 회계교육 자료 지원

광주광역시시는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대상 단체를 선정해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월20일부터 2월14일까지 수요조사를 통해 7개 유형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공모를 실시했으며, 총 181개 단체가 신청했다. 이 중 관련 부서와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76개 단체가 선정됐다. 선정된 단체는 이날부터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액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31일부터 가능하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이후인 4월16일부터 교부받아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김정관 기자 kissout@

이와 관련, 광주시는 선정된 단체의 사업성과 창출과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회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를 감안해 관련 자료를 4월 중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또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공익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한편 단체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열린 상담실(전화 613-2943, 이메일 rodemi@korea.kr)을 상시 운영한다. 김순옥 시 자치행정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이 연기됨에 따라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단체의 수요에 부응한 비대면 상담실 등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 kissout@

호남유권자연합, 제21대 4·15 국회의원 선거 지지후보자 발표

호남유권자연합(위원장:이관형)은 3월 30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호남지역 총선 출마자 중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총선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호남유권자연합은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중단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상임의장 정치학박사 이관형 외 이재관, 이정재, 허창범, 장영순, 김덕천, 고창인, 곽영경 위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토론을 거쳐 호남 지역을 대표할 일꾼을 뽑는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 능력을 제1의 기준으로 하여 추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서는 동남 갑 장병완 후보, 동남 을 박주선 후보, 서구 갑 송갑석 후보, 서구 을 양항자 후보, 북구 갑 김경진 후보, 북구 을 노남수 후보, 광산 갑 이용빈 후보, 광산 을 민형배 후보를 지지후보자로 뽑았고 전남도에서는 목포시 박지원 후보, 여수 갑 주철현 후보, 여수 을 김희재 후보, 순천 갑 노관규 후보, 순천 을 정인화 후보, 나주·화순 신정훈 후보, 고흥·보성·장흥·강진 황주홍 후보, 담양·장성·영광·함평 이개호 후보,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후보, 해남·완도·진도 운영일 후보를 지지 선

연했다. 호남유권자연합은 이날 지지선언 취지문을 발표하며 “지금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비상사태이지만 역사는 중단될 수가 없어 얼마남지 않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우리 호남 지역을 대표할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본 연합에서는 지난 3월17일 11시부터 광주소재 라마다르네상스 광주호텔 쌍그리홀에서 의장단 고문단,위원장단,국장단들이 우리 단체가 지지 협력할 후보자들을 추천받아 긴급 임원회의를 갖고 3월 23일부터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토론을 거쳐 본 연합이 지지하는 후보자들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 능력을 제1의 지지 후보 기준으로 도덕성과 개혁적인 인물이 이 지역에 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본 연합은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호남유권자연합은 2000년 5월20일에 창립된 시민,사회단체로 호남지역에 약5천명의 일반회원과 836명의 임원으로 조직된 비영리 시민 단체로 우리지역에 젊고 능력있는 훌륭한 정치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앞장서 왔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코로나19 극복과 총선승리를 위한 호남권선대위 출범 및 광주·전남 선대위원장 공동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미래준비 호남권선대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총선승리를 위한 호남권선대위 출범과 함께 광주전남선대위원장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당 미래준비 호남권선대위위원회 제공

호남선대위 출범 및 광주·전남선대위원장 공동 기자회견 위기극복 대책 마련과 예방수칙 준수 선거운동 다짐·투표참여 호소

더불어민주당 미래준비 호남권선대위위원회(이하 미래호남권선대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총선승리를 위한 호남권선대위 출범과 함께 광주전남선대위원장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미래호남권선대위 이개호 상임위원장과 서삼석, 송갑석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이형석 중앙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참석하였으며, 대변인을 맡은 신수정 광주시위원의 진행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형석 중앙당 공동선대위원장과 미래호남권선대위의 서삼석, 송갑석 공동위원장은 광주·전남 총선후보자들을 대표해 제21대 총선에 임하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민주당 총선 후보자들의 다짐을 낭독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총선승리를 다짐했다. 미래호남권선대위는 남독문을 통해 ‘민주당 후보들은 국민 안전을 위한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 하고 2차 추경편성을 정부에 건의하여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의 민주당 후보자 모두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며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서도 4·15총선 투표 참여 행동수칙을 준수하면서 꼭 투표를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유규진 기자

전남교육청, 다문화 학생 대상 온라인교육 지원 홈페이지 ‘전남 온라인교육서비스’에 다국어판 개설

전남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가 서툰 전남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도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코로나19 관련 휴업 기간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모두 한글로 이뤄져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따른다고 보고 이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중인 ‘전남 온라인 교육 서비스’ 팝업

창에 영문 버전의 ‘Multicultural Students(다문화가정 학생)’ 배너를 개설했다. 다문화학생들이 이 배너를 클릭하면, 베트남어와 중국어, 파갈로그어(필리핀 언어) 등 다국적 언어로 된 온라인 교육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각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보다 세밀한 대응책 강구를 요청했다. 또한, 홍보 활성화로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들이 교육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김다정 기자


전남도,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확대 추진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민·관이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사)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남연합회와 함께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차량 안에서 ‘드라이브스루 수산물 판촉 행사’를 서남권을 중심으로 4월중 3회에 걸쳐 확대 추

진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3회에 걸쳐 여수시와 완도군에서 주말을 이용,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활어회를 포장 판매를 위해 5천 6백만 원어치를 판매 하는 등 양식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또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를 돕기 위해 최근 2회에 걸쳐 전남도청 구내식당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식회와 수산물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박은진 기자 pej269400@

전남도민일보 사옥 이전 안내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는 건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을 읽는 당신. 내 고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문구독 아는만큼 힘이 됩니다.





광주광역시 풍영로101번안길 19-2
 지번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흑석동 532
 (우) 62234

